



반드시 반복되는 수능 국어 기출의 논리

수능 국어 학습의 출발, 홀수 기출 분석 시리즈

박광일 선생님이 강조하는 올바른 수능 국어 기출 분석법을
홀수 기출 분석 시리즈에 모두 담았습니다.

우리가 기출을 분석해야만 하는 이유

- 1 기출 분석은 수능 국어의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 줍니다.
- 2 기출 분석은 수능 국어에서 출제자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 3 기출 분석은 수능 국어에서 출제자가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게 합니다.
- 4 기출 분석은 수능 국어 문제의 유형과 물어보는 방식을 이해하게 하고 정답을 도출하는 올바른 사고방식을 길러 줍니다.
- 5 기출 분석은 문제를 틀린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게 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수능 국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출 분석은 단순히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히는 과정이 아니라, 영역별로 지문의 구조와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정답과 오답을 결정하는 정확한 근거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

단계별 학습을 통해 수능 국어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 요소를 파악하고, 어떻게 근거를 찾아 정답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1 단계 / 8주 완성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 독서]



- 최신 6개년 평가원 기출 공통 과목의 전 문항을 영역별로 수록하여, 수능 국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지문별 CHECK POINT와 문제 유형 분석을 통해 지문과 문제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익히고, 평가원이 요구하는 사고방식을 체화할 수 있습니다.
- '문제적 문제', '모두의 질문' 등과 함께 자세하고 친절한 해설을 제시하여 혼자서도 완벽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단계 / 5주 완성

홀수 기출 고난도 선별 (상) 학력평가



- 최신 7개년 학력평가에서 수능 출제 경향에 부합하는 기출을 선별하여 수록했습니다.
- 'PART 1 문학'은 수능 빈출 작가의 낯선 작품과 문제를 통해, 수능에서 어떤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PART 2 독서'는 수능 빈출 개념을 상세하게 다룬 지문과 문제를 통해, 고난도 독서를 대비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3 단계 + N / 8주 완성

홀수 기출 고난도 선별 (하) 평가원 [문학 / 독서] ⊗ 홀수 기출 N회독 평가원 모의고사



- 최신 평가원 출제 경향에 부합하는 고난도 평가원 기출을 선별하여 더욱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기출 분석 1~2단계를 거치며 체화한 지문 분석, 문제 풀이 방법을 적용하여 훈련함으로써 수능 국어 고득점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 최신 6개년 평가원 기출 공통 과목을 평가원 모의고사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 OMR 카드를 활용하여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 봄으로써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 문제를 풀고 난 후 약점 CHECK 분석표를 작성하여 나의 취약점을 진단함으로써 수능 국어 고득점을 위한 올바른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단계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 독서] 학습 (8주 완성)



홀수 공부법 TIP

- ☑ **1단계에서는** 총 2권의 책을 학습합니다. 기출 분석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모든 지문마다 '지문 분석 빈칸 채우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빈칸을 채우며 지문 독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문의 구조와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 후 해설 책을 볼 때에는 정답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 분석 내용과 자신의 독해 과정을 비교해 보고, 다양한 학습 장치를 참고하여 선지의 정·오답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때 핵심은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정확한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 ☑ **1~2일차에는** 2026학년도 수능 문제를 풀고 해설 책에 수록된 '박광일의 CHECK POINT'를 참고하여 최신 수능 국어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자신의 문제 풀이를 점검합니다.
- ☑ **3일차부터는** 각 영역별 [기본] → [심화] 순으로 기출 분석을 합니다.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 독서]』에서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기본]과 [심화]를 각 지문의 상단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기출 분석을 처음 시작하는 학습자는 [기본] 지문을 학습한 후 [심화] 지문을 학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기출 문제는 수능 때까지 반복적으로 분석해야 하고, 학습자마다 시기별 학습 순서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원하는 지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책에서는 최신 6개월 기출을 연도순으로 배치했습니다.

학습 주차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독서]
1주차	INTRO 수능 4 SET 기본 PART 1 현대시 6 SET 기본	INTRO 수능 4 SET 기본 + 심화 PART 1 독서론 6 SET 기본
2주차	PART 1 현대시 4 SET 심화 PART 2 고전시가 5 SET 기본 PART 2 고전시가 1 SET 심화	PART 1 독서론 8 SET 기본 PART 2 인문·사회 2 SET 기본
3주차	PART 2 고전시가 3 SET 심화 PART 3 현대소설 7 SET 기본	PART 2 인문·사회 6 SET 기본 PART 2 인문·사회 4 SET 심화
4주차	PART 3 현대소설 3 SET 기본 PART 3 현대소설 6 SET 심화 PART 4 고전산문 1 SET 기본	PART 2 인문·사회 5 SET 심화 PART 3 과학·기술 5 SET 기본
5주차	PART 4 고전산문 10 SET 기본	PART 3 과학·기술 3 SET 기본 PART 3 과학·기술 7 SET 심화
6주차	PART 4 고전산문 2 SET 기본 PART 4 고전산문 3 SET 심화 PART 5 갈래 복합 5 SET 기본	PART 3 과학·기술 2 SET 심화 PART 4 주제 복합 5 SET 기본
7주차	PART 5 갈래 복합 3 SET 기본 PART 5 갈래 복합 4 SET 심화	PART 4 주제 복합 5 SET 기본 PART 4 주제 복합 2 SET 심화
8주차	PART 5 갈래 복합 5 SET 심화	PART 4 주제 복합 5 SET 심화

홀수 기출 고난도 선별 (상) 학력평가 학습 (5주 완성)

2 단계

홀수 공부법 TIP

☑ **2단계에서는** 문제 책의 각 지문마다 '평가원 연계 POINT'를 수록하여 학력평가 기출에서 발견한 평가원 기출의 학습 요소를 소개하고, 이와 함께 풀어 보면 좋은 평가원 기출을 안내하였습니다.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 독서]』에서 해당 기출 지문을 찾아 오늘 풀어 본 문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며 복습합니다.

☑ **매일매일** 1단계에서 학습한 지문 분석법과 문제 풀이법을 떠올리며 문학과 독서를 한 세트씩 풀고, 해설 책을 참고하여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 내가 찾은 근거와 해설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학습 주차	PART 1 [문학]	문제 책 페이지	PART 2 [독서]	문제 책 페이지	학습 체크	
1 주차	1일차 (월 일)	CHAPTER 1 _ 현대시 ①	P.014	CHAPTER 1 _ 인문 ①	P.088	<input type="checkbox"/>
	2일차 (월 일)	CHAPTER 1 _ 현대시 ②	P.016	CHAPTER 1 _ 인문 ②	P.092	<input type="checkbox"/>
	3일차 (월 일)	CHAPTER 1 _ 현대시 ③	P.018	CHAPTER 1 _ 인문 ③	P.094	<input type="checkbox"/>
	4일차 (월 일)	CHAPTER 1 _ 현대시 ④	P.020	CHAPTER 1 _ 인문 ④	P.096	<input type="checkbox"/>
	5일차 (월 일)	CHAPTER 1 _ 현대시 ⑤	P.022	CHAPTER 1 _ 인문 ⑤	P.100	<input type="checkbox"/>
2 주차	1일차 (월 일)	CHAPTER 2 _ 고전시가 ①	P.024	CHAPTER 2 _ 사회 ①	P.104	<input type="checkbox"/>
	2일차 (월 일)	CHAPTER 2 _ 고전시가 ②	P.026	CHAPTER 2 _ 사회 ②	P.106	<input type="checkbox"/>
	3일차 (월 일)	CHAPTER 2 _ 고전시가 ③	P.028	CHAPTER 2 _ 사회 ③	P.108	<input type="checkbox"/>
	4일차 (월 일)	CHAPTER 2 _ 고전시가 ④	P.030	CHAPTER 2 _ 사회 ④	P.110	<input type="checkbox"/>
	5일차 (월 일)	CHAPTER 3 _ 현대소설 ①	P.032	CHAPTER 2 _ 사회 ⑤	P.114	<input type="checkbox"/>
3 주차	1일차 (월 일)	CHAPTER 3 _ 현대소설 ②	P.036	CHAPTER 3 _ 과학 ①	P.118	<input type="checkbox"/>
	2일차 (월 일)	CHAPTER 3 _ 현대소설 ③	P.040	CHAPTER 3 _ 과학 ②	P.120	<input type="checkbox"/>
	3일차 (월 일)	CHAPTER 3 _ 현대소설 ④	P.042	CHAPTER 3 _ 과학 ③	P.122	<input type="checkbox"/>
	4일차 (월 일)	CHAPTER 3 _ 현대소설 ⑤	P.044	CHAPTER 3 _ 과학 ④	P.124	<input type="checkbox"/>
	5일차 (월 일)	CHAPTER 4 _ 고전산문 ①	P.048	CHAPTER 3 _ 과학 ⑤	P.128	<input type="checkbox"/>

학습 주차		PART 1 [문학]	문제 책 페이지	PART 2 [독서]	문제 책 페이지	학습 체크
4 주차	1일차 (월 일)	CHAPTER 4 _ 고전산문 ②	P.050	CHAPTER 4 _ 기술 ①	P.132	<input type="checkbox"/>
	2일차 (월 일)	CHAPTER 4 _ 고전산문 ③	P.054	CHAPTER 4 _ 기술 ②	P.134	<input type="checkbox"/>
	3일차 (월 일)	CHAPTER 4 _ 고전산문 ④	P.056	CHAPTER 4 _ 기술 ③	P.136	<input type="checkbox"/>
	4일차 (월 일)	CHAPTER 4 _ 고전산문 ⑤	P.060	CHAPTER 4 _ 기술 ④	P.138	<input type="checkbox"/>
	5일차 (월 일)	CHAPTER 5 _ 갈래 복합 ①	P.062	CHAPTER 4 _ 기술 ⑤	P.142	<input type="checkbox"/>
5 주차	1일차 (월 일)	CHAPTER 5 _ 갈래 복합 ②	P.066	CHAPTER 5 _ 주제 복합 ①	P.146	<input type="checkbox"/>
	2일차 (월 일)	CHAPTER 5 _ 갈래 복합 ③	P.070	CHAPTER 5 _ 주제 복합 ②	P.150	<input type="checkbox"/>
	3일차 (월 일)	CHAPTER 5 _ 갈래 복합 ④	P.074	CHAPTER 5 _ 주제 복합 ③	P.154	<input type="checkbox"/>
	4일차 (월 일)	CHAPTER 5 _ 갈래 복합 ⑤	P.078	CHAPTER 5 _ 주제 복합 ④	P.158	<input type="checkbox"/>
	5일차 (월 일)	CHAPTER 5 _ 갈래 복합 ⑥	P.082	CHAPTER 5 _ 주제 복합 ⑤	P.162	<input type="checkbox"/>

홀수 기출 고난도 선별 (하) 평가원 [문학 / 독서] & 홀수 기출 N회독 평가원 모의고사 학습 (8주 완성)

3 단계

홀수 공부법 TIP

☑ 3단계에서는 총 3권의 책을 학습합니다. 먼저 1~2단계에서 학습한 지문 분석법과 문제 풀이법을 떠올리며 『홀수 기출 고난도 선별 (하) 평가원 [문학 / 독서]』에서 각각 한 세트씩 풀고 해설 책을 참고하여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 내가 찾은 근거와 해설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 홀수 기출 N회독 평가원 모의고사는 ① 실전처럼 제한 시간을 두고 문제를 풀어 봅니다. ② 채점을 한 후 '약점 CHECK 분석표'를 작성하여 영역별, 문제 유형별로 나의 취약점을 진단합니다.



학습 주차	홀수 기출 고난도 선별 (하) 평가원 [문학]	홀수 기출 고난도 선별 (하) 평가원 [독서]	홀수 기출 N회독 평가원 모의고사
1주차	PART 1 현대시 5 SET	PART 1 인문·예술 5 SET	1회차 2회차
2주차	PART 1 현대시 1 SET PART 2 고전시가 4 SET	PART 1 인문·예술 4 SET PART 2 사회 1 SET	3회차 4회차
3주차	PART 3 현대소설 5 SET	PART 2 사회 5 SET	5회차 6회차
4주차	PART 3 현대소설 5 SET	PART 2 사회 2 SET PART 3 과학 3 SET	7회차 8회차
5주차	PART 3 현대소설 1 SET PART 4 고전산문 4 SET	PART 3 과학 5 SET	9회차 10회차 11회차
6주차	PART 4 고전산문 3 SET PART 5 갈래 복합 2 SET	PART 3 과학 3 SET PART 4 기술 2 SET	12회차 13회차 14회차
7주차	PART 5 갈래 복합 5 SET	PART 4 기술 5 SET	15회차 16회차
8주차	PART 5 갈래 복합 2 SET PART 6 극 3 SET	PART 4 기술 2 SET PART 5 주제 복합 3 SET	17회차 18회차

*해당 교재에는 세부 계획표가 제공됩니다.

홀수 기출 분석 시리즈 6개월 학습 PLAN을 마친 후에는
수능 때까지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 독서]』 위주로 반복 학습하되,
『홀수 기출 N회독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 파악한 나의 취약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 첫째** 2019학년도~2025학년도 교육청 학력평가 공통 영역에서 박광일 선생님이 엄선한 꼭 풀어 보아야 할 기출을 수록했습니다.
- 둘째**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문제 책과 해설 책으로 분권하였으며, 해설 책에도 문제를 재수록하여 문제와 해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문제 책



박광일 선생님이 엄선한 고난도 기출 수록

엄선된 고난도 지문을 문학은 갈래별로, 독서는 주제별 분류하여 전 문항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문학은 한 세트당 5~6분, 독서는 문항 수를 고려하여 3문항은 5분, 4문항은 7~8분, 6문항은 8~10분 이내에 푸는 것을 권장합니다.

평가원 연계 POINT

박광일 선생님이 해당 기출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와 연계하여 함께 풀어 보면 좋을 평가원 기출을 추천합니다. 평가원 기출은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 독서]』에서 바로 찾아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해당 책의 페이지를 제시했습니다.

평가원 연계 POINT

낮설고 어려운 문학 작품이 출제되는 최근 평가원 시험 경향에 부합하는 지문 정착 정답이 도출되는 원리는 간단해서 낯선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적정 수 추상적인 사람의 감정을 '배'의 움직임에 빚대어 표현한 아래의 평가원 기출

(25수능) 장석남, 「배를 밀며」, 허수경, 「흔자 가는 먼 집」, 이광호, 「이젠 되도록 편지 안

해설 책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이해 | 정답률 76

2. <보기>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시에서 특정 호칭의 사용은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나 거리를 조정하여 정서를 나타내는 기반이 된다.

보기 분석

- 시에서 특정 호칭의 사용: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나 거리 조정 → 정서를 나타내는 기반

정답풀이

①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서 화자의 우울함을 대상에게 투영한다.

[A]에서 화자는 아스팔트를 '너'로 지칭함으로써, 아스팔트를 가까운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호칭의 사용은 화자와 아스팔트의 심리적 거

문항 해설

혼자서도 완벽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보기> 분석과 모든 문항의 정·오답의 근거를 담은 친절하고 상세한 해설을 제시했습니다.

이것만은 챙기자

- ***금점꾼**: 금광에서 일을 하는 사람.
- ***대차**: 사람이 많이 살고 상공업이 발달한 번잡한 지역.

이것만은 챙기자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를 풀이하여 기출 분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휘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모두의 질문 3-③번

Q: 선생님의 안내에 따르면 (가)에서 '병중의 화자가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초월적 세계를 상상하며 고통을 초극'한다고 했는데요. 이는 ⑥번에서 언급한 정서를 반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문제적 문제 4-⑤번

4번은 정답을 맞힌 수험생이 28%에 불과할 만큼 까다로운 문제였다. 특정한 오답 선지의 함정에 빠졌다기보다는 정답인 ⑥번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지 못해 확신 없이 다른 선지를 골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모두의 질문 & 문제적 문제

온라인 강의와 현장에서 수험생들이 많이 한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고,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심화 분석하여 매력적인 오답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답을 고르는 방법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셋째 모든 문항의 정·오답에 대한 근거와 해설을 친절하게 제시하여 혼자서도 완벽한 기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 책의 마지막 장에서 **빠른 정답 찾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항별로 제시된 문제의 유형과 정답률을 통해 나의 약점 유형을 진단하고 체감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RT 1. 문학

화자와 대상의 관계	임을 그리워하는 사람
상황?	잠에서 깨어 임을 그리워함 → 임을 잊지 못해 슬퍼함 →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고자 함

운문 작품 분석

운문 갈래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작품 속 화자와 대상, 상황을 제시하여 문제 풀이를 위한 효율적인 작품 분석법을 안내합니다.

고전시가 현대어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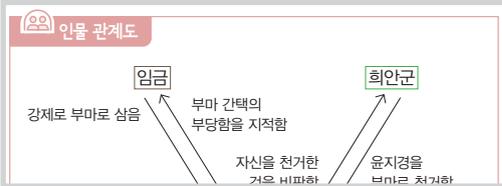
고전시가 원문 옆에 현대어 풀이를 배치하여 작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대어 풀이

어젯밤 불던 바람 쇳소리(가을 바람 소리)가 뚜렷하다
슬슬한 잠자리 깊이 든 밤 임을 그리워하는 꿈 훌쩍 깨어
대나무 창을 반만 열고 막막하게 앉아 보니
창창한 먼 하늘에 여름 구름이 흩어지고

전체 줄거리

지질학자인 '나'는 대학에서 강사 일을 하고 '나'의 아내는 부동산 투기에 재능을 보이며 큰돈을 번다. 답사를 학술 활동으로 여기는 '나'는 부동산 사업자인 아내가 떤은 버려 가 때마다 단신을 가두고 하는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산문 작품 분석

산문 갈래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인물의 심리, 장면별 주요 내용을 해설하고 전체 줄거리 및 인물 관계도를 실었습니다.

PART 2. 독서

사과의 흐름

(상장 법인의 사업 내용, 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 15상장 법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증권이 발행되면, 상장 법인은 청약할 권유하고 투자자는 해당 증권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증권을 공모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발행 시장에서의 공시에 대해 제시하고 있어. 4 16유통 시장은 공모 절차를 거친 증권이 투자자들 간에 거래되는 곳이다. 17여기에서는 증권의 매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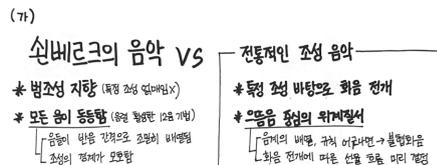
사과의 흐름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사고하는 것이 논리적인지를 시각화하여 보여 주는 사과의 흐름을 통해 출제자의 관점에서 지문을 독해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만점 선배의 구조도 예시

지문 구성 원리를 파악하여 자신만의 구조도를 그려 본 후 만점 선배의 구조도와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만점 선배의 구조도 예시



현대시		기출 연도	문제 책	해설 책
CHAPTER 1	① 김기림, 「아스팔트」 / 김명인, 「봄길」	2025학년도 3월	P.014	P.006
	② 정지용, 「장수산 1」 / 고재중, 「고요를 시정하다」	2023학년도 3월	P.016	P.010
	③ 이육사,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 / 신경림,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2022학년도 10월	P.018	P.014
	④ 이육사, 「황혼」 / 김종길, 「바다에서」	2021학년도 7월	P.020	P.018
	⑤ 박목월, 「사랑가」 / 박남준, 「따뜻한 얼음」	2019학년도 4월	P.022	P.022

고전시가		기출 연도	문제 책	해설 책
CHAPTER 2	① 남도진, 「낙은별곡」 / 윤양래, 「갑곡만영」	2024학년도 5월	P.024	P.026
	② 이호민, 「서호가」 / 남극엽, 「애경당십이월가」	2023학년도 4월	P.026	P.030
	③ 홍계영, 「희설」 / 강복중, 「수월정청흥가」	2022학년도 4월	P.028	P.036
	④ 작자 미상, 「추풍감별곡」 / 정훈, 「월곡답가」	2019학년도 7월	P.030	P.041

현대소설		기출 연도	문제 책	해설 책
CHAPTER 3	① 이청준, 「불 머금은 향아리」	2025학년도 7월	P.032	P.046
	② 박완서, 「낙토의 아이들」	2024학년도 7월	P.036	P.051
	③ 최인호, 「견습 환자」	2022학년도 4월	P.040	P.056
	④ 김승옥, 「차나 한잔」	2021학년도 7월	P.042	P.061
	⑤ 염상섭, 「임종」	2020학년도 7월	P.044	P.065

고전산문		기출 연도	문제 책	해설 책
CHAPTER 4	① 작자 미상, 「설홍전」	2025학년도 7월	P.048	P.072
	② 작자 미상, 「윤지경전」	2024학년도 7월	P.050	P.077
	③ 작자 미상, 「징세비태록」	2024학년도 3월	P.054	P.082
	④ 작자 미상, 「장풍운전」	2022학년도 10월	P.056	P.088
	⑤ 작자 미상, 「반씨전」	2020학년도 10월	P.060	P.094

갈래 복합		기출 연도	문제 책	해설 책
CHAPTER 5	① 조지훈, 「묘망」 / 김광규, 「크낙산의 마음」 / 이산해, 「죽봉기」	2024학년도 5월	P.062	P.100
	② 신고, 「귀산음」 / 박인로, 「노계가」 / 법정, 「거꾸로 보기」	2023학년도 7월	P.066	P.106
	③ 이육사, 「노정기」 / 최승호, 「발효」 / 김진규, 「물인설」	2023학년도 4월	P.070	P.114
	④ 구강, 「총석곡」 / 장복겸, 「고산별곡」 / 백석, 「동해」	2023학년도 3월	P.074	P.120
	⑤ 신석정, 「역사」 / 문태준, 「빈집의 약속」 / 김석주, 「의훈」	2022학년도 4월	P.078	P.126
	⑥ 김득연, 「산중잡곡」 / 권섭, 「영삼별곡」 / 이수광, 「침류대기」	2020학년도 10월	P.082	P.132

PART 2 [독서]

인문		기출 연도	문제 책	해설 책
CHAPTER 1	① 허먼의 객체 지향 존재론	2024학년도 5월	P.088	P.140
	② 공손룡과 후기 목가의 명실 논쟁	2023학년도 4월	P.092	P.145
	③ 과학 이론의 성립	2022학년도 10월	P.094	P.150
	④ 고전 검사 이론과 문항 반응 이론	2021학년도 10월	P.096	P.155
	⑤ 카르납과 로티의 언어관	2020학년도 7월	P.100	P.161

사회		기출 연도	문제 책	해설 책
CHAPTER 2	① 상장 법인의 공시 의무	2025학년도 3월	P.104	P.168
	② 유증과 상속	2024학년도 3월	P.106	P.173
	③ 공공선택론	2022학년도 7월	P.108	P.178
	④ 실업과 정부의 역할	2020학년도 4월	P.110	P.183
	⑤ 세율 구조와 조세 부담의 희생 균등 원칙	2020학년도 3월	P.114	P.188

과학		기출 연도	문제 책	해설 책
CHAPTER 3	① 자기 유변 유체 기반 제진 시스템	2025학년도 5월	P.118	P.194
	② 인체의 혈압 조절	2025학년도 3월	P.120	P.199
	③ 세포자멸사와 그 기능	2024학년도 7월	P.122	P.204
	④ 호흡	2020학년도 10월	P.124	P.209
	⑤ 유체의 응력과 점성	2020학년도 4월	P.128	P.215

기술		기출 연도	문제 책	해설 책
CHAPTER 4	① 눈의 굴절력과 비정시 교정 원리	2023학년도 10월	P.132	P.220
	② 이중 편파 레이더	2023학년도 7월	P.134	P.225
	③ 문자열 검색과 해시 함수	2022학년도 3월	P.136	P.230
	④ OLED의 발광 원리	2020학년도 7월	P.138	P.234
	⑤ 암호통신의 키 관리	2019학년도 7월	P.142	P.239

주제 복합		기출 연도	문제 책	해설 책
CHAPTER 5	① 쇠베르크 음악의 범조성 / 쇠베르크 음악에 대한 레보비츠의 견해와 그에 대한 반박	2025학년도 3월	P.146	P.246
	② 볼테르의 역사 철학 / 헤르더의 역사 철학	2024학년도 10월	P.150	P.255
	③ 미적 대상에 대한 스톨니츠의 견해 / 미적 대상에 대한 비어즐리의 견해	2021학년도 4월	P.154	P.262
	④ 호펠트의 권리 범주 / 의사설과 이익설	2020학년도 10월	P.158	P.269
	⑤ 들뢰즈의 주름 개념과 랜드스케이프 건축	2019학년도 7월	P.162	P.275

PART 1



문학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스팔트 위에는
4월의 석양이 즐리고

앞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 밑에서는
오후가 손질한다.

소리 없는 고무바퀴를 신은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히 지나간 뒤에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저.

너의 가슴은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쉬러 오는
회색의 잔디밭

[A]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의 탄식을 들으러 나오는 침묵한 행인들
을 위하여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는
지평선의 흥내를 낸다.

- 김기림, 「아스팔트」 -

(나)

꽃이 피면 마음 간격들 한층 촘촘해져

④김제 봄들 건너는데 몸 건너기가 너무 힘겹다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저내리는

그 꽃잎 부리러*

이 배는 ⑥신포 어디쯤에 닿아 해맨다

저 망해 다 쓸고 온 꽃샘바람 거기 부는 듯

몸 속에 곤두서는 봄 밖의 봄바람!

눈앞 해발이 양쪽 날개 펼친 구름

사이로 스미려다

골짜기 비집고 빠져나오는 염소 떼와 문득 마주친다

염소도 제 한 몸 한 척 배로 따로 띄우는지

만경 저쪽이 포구라는 듯

새끼 염소 한 마리,

지평도 뿌우연 황삿길 타박거리며 간다

마음은 곁가지로 펼쳐거리며 덜 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하지만

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은 아지랑이 너머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달이 꿇긴 배 한 척,

- 김명인, 「봄길」 -

*부리러: 사람의 등에 지거나 자동차나 배 따위에 실었던 것을 내려
놓으러.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명암의 대비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시적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⑤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시에서 특정 호칭의 사용은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나 거리를 조정하여 정서를 나타내는 기반이 된다.

- ①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서 화자의 우울함을 대상에게 투영한다.
- ② 대상과 각별한 관계를 형성하여 화자가 느낀 경이로움을 나타낸다.
- ③ 대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느낀 화자의 회의감을 드러낸다.
- ④ 대상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화자의 권태로움을 해소한다.
- ⑤ 대상과의 관계를 역전시켜 화자의 침울함을 극복한다.

낮설고 어려운 문학 작품이 출제되는 최근 평가원 시험 경향에 부합하는 지문이다. 특히 (나)와 관련된 *3번 문제는 정답률이 24%에 불과했는데, 정작 정답이 도출되는 원리는 간단해서 낯선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적정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문제를 풀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와 같이 추상적인 사람의 감정을 '배'의 움직임에 빗대어 표현한 아래의 평가원 기출과 연계하여 풀어 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25수능) 장석남, 「배를 밀며」, 허수경, 「혼자 가는 먼 집」, 이광호,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 「출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문제 책 154P

★ 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화자는 '꽃이 피는 것과 내면의 변화 간의 관련성을 의식한다.
- ② ㉡에서 '건너기'의 힘들음을 자각한 화자는 이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로 향한다.
- ③ ㉢에서 화자는 '거기'에 부는 '꽃샘바람'을 '몸 속'에서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다.
- ④ '마음'과 '상심' 사이에서 변민하는 화자는 자신을 ㉡와 ㉢ 사이에 놓인 '닿이 끊긴 배 한 척'으로 인식한다.
- ⑤ ㉢에서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한다.

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시적 대상이 지닌 속성은 다른 대상으로 전이되면서 시적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가)에서는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아스팔트에 자연물이 인접하여 배치됨으로써 생명력을 띤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가 완화되고, (나)에서는 봄 들판과 바다라는 상이한 공간의 이미지가 중첩됨으로써 공간에 속한 대상의 속성이 화자의 내면에 공유된다.

- ① (가)에서 '4월'의 '가로수'는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상태로 제시되어 생명력을 띠지 않은 '아스팔트'의 속성이 전이되었음을 드러내고, (나)에서 들판을 건너는 화자의 '몸'은 바다를 건너는 '배'와 중첩되어 화자의 부유하는 내면을 드러낸다.
- ② (가)에서 '고무바퀴를 신은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자동차가 지닌 분주함이 아스팔트에 전이되어 자동차와 아스팔트의 경계가 완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가)에서 '지평선의 흉내'를 내는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가 '행인들'을 '위하'는 존재로 포착된 것은, 아스팔트가 '바다'의 속성을 공유하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 ④ (나)에서 들판과 바다라는 공간의 중첩은 '염소'도 '제 한 몸 한 척 배로 따로 띄우는' 것으로 전이되면서, 화자가 '염소'에게서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⑤ (나)에서 '새끼 염소'가 가는 '지평도 뿌우연 황삿길'은 화자가 향하는 '아지랑이 너머'와 중첩되면서, 자신이 지향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으리라는 화자의 인식을 암시한다.

MEMO

PART 2



독서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철학자 그레이엄 하먼은 인간이 사물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인간 중심주의 철학을 비판하며, 인간과 사물, 나아가 모든 존재가 동등하다는 **객체 지향 존재론**을 주장한다.

하먼은 어떤 점에서 모든 존재가 동등하다고 보았을까?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인간 중심주의 철학에서 바라보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지적한다. 하먼 이전 인간 중심주의 철학은 인간이 주체로서 사물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여겼다. 즉 인간이 사물을 어떤 기본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하거나,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이나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면 그 사물의 본질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하먼은 이러한 관점들은 인간이 사물을 인간에게 필요한 도구로 바라볼 뿐 객체 그 자체로 다루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하먼에 의하면 사물은 인간이 그 본질을 결정하는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객체이다. 즉 객체는 다른 존재에게 파악되지 않도록 ‘물러나는’ 측면과 다른 존재에게 분석된 구성 요소 이상의 다른 무언가로 스스로 ‘드러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사물을 자신과 맺는 사물의 가치나 성격으로 일반화하려고 할 때 객체는 스스로 일반화되지 않고, 동시에 인간이 어떤 구성 요소로 사물을 분석하려고 할 때 그 구성 요소만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결국 ①인간은 객체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그는 인간 역시 객체이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 역시 ‘물러나는’ 측면과 ‘드러나는’ 측면이 있어 그 누구에게도 어떤 상위 개념으로 일반화되지 않고, 형태, 색깔, 크기 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러한 객체에 대한 하먼의 입장은 허구적이고 비실재적인 것까지도 이어져,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른 객체에게 완전히 파악될 수 없는 동등한 존재라는 주장으로 확장된 것이다.

객체가 완전히 파악될 수 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객체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먼은 객체는 객체가 발산하는 정보나 담고 있는 특질인 성질을 가지며, 성질이 없는 객체나 객체가 없는 성질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감각을 통해 우리 바깥에 있는 객체의 존재와 성질을 지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떤 객체는 우리가 결코 직접 접촉할 수 없기도 하며, 어떤 객체는 그 존재가 감각으로 지각될 수 있어도 그 객체의 성질은 결코 우리가 접촉할 수 없기도 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객체와 성질의 관계에 따라 객체를 감각 객체와 실제 객체로, 성질을 감각 성질과 실제 성질로 구분한다.

먼저 감각 객체는 관찰자가 감각을 통해 지각하는 것이 가능한 객체이고, 실제 객체는 관찰자가 감각을 통해 지각할 수 없는

객체이다. 이때 관찰자의 감각에는 인간의 오감만이 아니라 동물의 감각은 물론 측정 기기에 의한 측정 등도 포함될 수 있다. 가령 숲에 있는 나무를 어떤 한 관찰자가 보거나 관측했다면 이 관찰자에게 나무는 감각 객체이며, 어떤 관찰자도 이 나무를 보거나 관측하지 못했다면 이는 실재하지만 관찰되지 않은 실제 객체이다.

다음으로 객체는 감각 성질과 실제 성질을 가지는데, 감각 성질은 객체의 성질 가운데 관찰자의 감각을 통해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즉 형태, 색깔, 크기 등과 같은 것이다. 반면 실제 성질은 그 객체가 발산하는 정보나 담고 있는 특질이지만 관찰자가 감각을 통해 지각할 수 없어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성질이다. 가령 관찰자가 감각을 통해 지각한 나뭇잎의 푸른색은 감각 성질이며, 나뭇잎이 떨어지는 순간 이를 지각할 수 없는 지구 반대편의 관찰자에게 이 나뭇잎의 운동량은 실제 성질이다.

결국 하먼에 의하면 모든 객체는 드러나는 측면과 동시에 물러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관찰자도 객체의 모든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즉 우리는 객체의 일부만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먼은 그것이 인간 중심주의 철학에 의해 도구로 전락했던 모든 객체가 비로소 객체 그 자체로서 철학적 사유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을 이유라고 역설한다.

1. **객체 지향 존재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허구적이고 비실재적인 것도 객체로 본다.
- ② 객체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본다.
- ③ 객체 가운데 성질이 없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객체가 발산하는 정보나 담고 있는 특질을 성질이라고 본다.
- ⑤ 인간 중심주의 철학은 객체를 그 자체로 다루지 못한다고 본다.

모든 존재가 동등하다고 보는 그레이엄 하먼의 주장을 다른 지문으로, 사물을 인간에게 필요한 도구로 간주하는 인간 중심주의 철학과의 차이점을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문항의 난도가 높지 않아, 지문에 제시된 주장을 다른 주장과 비교하거나 사례에 적용하는 기본적인 문제 풀이 훈련을 하기에 적합하다. 아래에 제시된 최근 평가원 기출과 연계하여 학습한다면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다.

2606 「플로리다의 정보 철학」 /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독서] 문제 책 058P

2. 윗글의 ‘하먼’과 ‘인간 중심주의 철학’의 입장에서 <보기>의 ㄱ~ㄴ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ㄱ.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을 더 이상 분해가 불가능한 미립자로 나눈 뒤 그 입자를 분석하면 만물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다.
- ㄴ. 인간의 입장에서 생산되고 전파되던 과학 지식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전통차와 같은 사물도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아야 한다.
- ㄷ.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점은 인간만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ㄹ. 한 자루의 종이칼과 같은 사물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물의 본질은 사람의 구상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있다.

- ① 인간 중심주의 철학은 ㄱ과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② 인간 중심주의 철학은 ㄴ과 ㄹ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③ 하먼은 ㄴ에 동의하지 않고 ㄷ에 동의하겠군.
- ④ 하먼은 ㄷ에 동의하지 않고 ㄱ에 동의하겠군.
- ⑤ 하먼은 ㄹ에 동의하지 않고 ㄴ에 동의하겠군.

3. 윗글을 읽은 학생이 ‘하먼’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자료 1]

천왕성은 1781년에 윌리엄 허셜이 망원경으로 처음 관측했다. 그는 처음 관측한 시점에는 천왕성이 단순히 혜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꾸준한 관측 결과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약 200년 뒤 관측선 보이저 2호는 천왕성에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찍어 지구의 천문학자들에게 보냈다. 그 사진을 본 지구의 천문학자들은 천왕성의 열은 초록색과 수많은 위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 2]

그림 삽화가 A 씨는 출판사에서 삽화를 그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의 출판사 동료들은 A 씨가 빠른 손놀림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것을 보고 그의 실력과 그림을 칭찬했다. 하지만 그는 그림보다 영화 제작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퇴근 후에 영화 시나리오를 썼다. A 씨의 이러한 관심을 출판사 동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

- ① [자료 1]에서 ‘허셜’이 관측한 ‘천왕성’은 감각 객체이겠군.
- ② [자료 2]의 ‘A 씨’의 ‘영화 제작에 대한 관심’은 ‘출판사 동료들’에게 실재 성질이겠군.
- ③ [자료 1]의 ‘천왕성’과 [자료 2]의 ‘A 씨’의 ‘영화 시나리오’는 각각 ‘보이저 2호’와 ‘출판사 동료들’에게 실재 객체이겠군.
- ④ [자료 1]의 ‘천왕성’의 ‘열은 초록색’과 [자료 2]의 ‘A 씨’의 ‘빠른 손놀림’은 각각 ‘보이저 2호’와 ‘출판사 동료들’에게 감각 성질이겠군.
- ⑤ [자료 1]의 ‘보이저 2호’가 찍은 ‘사진’과 [자료 2]에서 ‘A 씨’가 그린 ‘그림’은 각각 ‘지구의 천문학자들’과 ‘출판사 동료들’에게 감각 객체이겠군.

PART 1

문학

문제 책 페이지	해설 책 페이지	SET	문제 번호 & 정답					
P.048	P.072	고전산문 ❶	1. ㉠	2. ㉡	3. ㉢	4. ㉣		
P.050	P.077	고전산문 ❷	1. ㉡	2. ㉠	3. ㉣	4. ㉢		
P.054	P.082	고전산문 ❸	1. ㉣	2. ㉡	3. ㉡	4. ㉡		
P.056	P.088	고전산문 ❹	1. ㉠	2. ㉣	3. ㉡	4. ㉡		
P.060	P.094	고전산문 ❺	1. ㉠	2. ㉡	3. ㉠			

문제 책 페이지	해설 책 페이지	SET	문제 번호 & 정답					
P.062	P.100	갈래 복합 ❶	1. ㉢	2. ㉣	3. ㉡	4. ㉠	5. ㉣	6. ㉡
P.066	P.106	갈래 복합 ❷	1. ㉠	2. ㉣	3. ㉡	4. ㉢	5. ㉠	6. ㉠
P.070	P.114	갈래 복합 ❸	1. ㉢	2. ㉣	3. ㉠	4. ㉣	5. ㉣	
P.074	P.120	갈래 복합 ❹	1. ㉠	2. ㉢	3. ㉢	4. ㉡	5. ㉠	6. ㉢
P.078	P.126	갈래 복합 ❺	1. ㉣	2. ㉡	3. ㉡	4. ㉡	5. ㉡	
P.082	P.132	갈래 복합 ❻	1. ㉡	2. ㉡	3. ㉡	4. ㉠	5.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맘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갈매기**들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B]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내** 품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C] 저-십이성좌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囚人)***들에게도
의지할 **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을까

[D] 고비사막을 끊어가는 낙타 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쓰는 **인디언**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E] 내 **오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오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暗暗)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 이육사, 「황혼」 -

화자와 대상의 관계	황혼을 통해 소외된 대상에게 애정과 위로를 보내고자 하는 '나'
상황?	황혼을 보며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 생각함 → 황혼에게 안긴 모든 것에 위로를 보내고자 함 →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존재들을 떠올리며 연민을 느낌 → 황혼이 다시 찾아올 것을 기대함

이것만은 챙기자

- *수인: 옥에 갇힌 사람.
- *암암히: 기억에 남은 것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하게.

(나)

차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나는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

길길이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견잡을 수 없이 나의 **해로(海路)**가 일렁일지라도

나는 **홀로**이나라,
나는 **바다**와 더불어 홀로이나라.

일었다간 스러지는 감상(感傷)*의 물거품으로
자폭(自暴)*의 잔(盞)을 채우던 **옛날**은
이제 **아득**히 띄워보내고,

원뿔을 내어막긴 천인(千仞)*의 깊이 위에
나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으니

슬픔이 설사 또한 **바다**만 하기로
나는 **뉘우치**지 **않**을
나의 **하늘**을 꿈꾸노라.

- 김종길, 「바다에서」 -

화자와 대상의 관계	바다에서 슬픔을 극복하고 하늘을 꿈꾸는 '나'
상황?	슬픔에 괴로워했던 과거를 떠올림 → 고난 속에서 자신이 혼자임을 인식함 → 부정적인 과거와 단절하려 함 → 슬픔을 이겨내고 하늘을 꿈꿈

이것만은 챙기자

- *감상: 하찮은 일에도 쓸쓸하고 슬퍼져서 마음이 상함. 또는 그런 마음.
- *자폭: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
- *천인: 천 길이라는 뜻으로, 산이나 바다가 매우 높거나 깊음을 이르는 말.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 정답률 92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풀이

- ②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는 '부드러운 손', '뜨거운 입술' 등에서, (나)는 '차운 물보라'에서 촉각적 심상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한다.

오답풀이

- ① 수미상관 기법으로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수미상관은 첫 부분과 끝 부분이 비슷하거나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 기법이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가)는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에서 묻는 형식이 나타나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나타나지 않으며, (나)에서는 묻는 형식과 답하는 형식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적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흰갈매기들', '푸른 커튼' 등에서 색채어가 나타나지만, (나)에서는 색채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으며,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도 나타나지 않는다.

기름잡기

- ① 수미상관: 시의 처음과 끝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구를 배치하는 것.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며,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음.
- ④ 색채어: 사물의 빛깔을 표현하는 어휘. 색채어가 등장하면 당연히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며, 두 가지 색채가 뚜렷한 대비를 이루면 '색채 대비'를 이룬다고 함.
- ⑤ 반어: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강화하는 것.

시어·시구의 의미 및 기능 파악 | 정답률 80

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풀이

- ③ [C]: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는 존재들이 '별들', '수녀들', '수인들'에게 위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C]에서 화자는 '별들', '수녀들', '수인들'의 '의지할 가지 없는' 심장이 '떨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C]는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는 존재들이 '별들', '수녀들', '수인들'에게 위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떨고 있'는 존재인 '별들', '수녀들', '수인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풀이

- ① [A]: '바다의 흰갈매기'에 빗대어 '인간'이 '외로운' 존재임을 부각하고 있다.
[A]의 '바다의 흰갈매기들'도 /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바다의 흰갈매기'처럼 '인간'도 '외로운' 존재임을 부각하고 있다.
- ② [B]: '황혼'의 '손'에 '입술'을 '맞추어 보'려는 것에서 '모-든 것'에 '입술'을 '보내'려는 것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B]에서 화자는 '황혼'의 '부드러운 손'에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고자 하는데, 이후 화자가 '입술'을 보내고자 하는 대상은 '황혼'의 '품안에 안긴 모-든 것'으로 확장되어 나타난다.
- ④ [D]: '지구의 반쪽'을 '타는 입술'에 맡겨달라고 하며, '행상대'나 '인디언'을 향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D]에서 화자는 '낙타 탄 행상대'나 '활 쏘는 인디언'에게 관심을 드러내며, '황혼'에게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 달라고 하고 있다.
- ⑤ [E]: '오월의 골방'에서 '아늑'함을 느끼면서 '내일도' '커튼을 걷어 '황혼'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E]에서 화자는 '오월의 골방'이 아늑하다 느끼면서 '내일도' '저-푸른 커튼을 걷어 '황혼'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PART 2

독서

문제 책 페이지	해설 책 페이지	SET	문제 번호 & 정답					
P.132	P.220	기술 ①	1. ㉓	2. ㉔	3. ㉕	4. ㉖		
P.134	P.225	기술 ②	1. ㉕	2. ㉔	3. ㉔	4. ㉕		
P.136	P.230	기술 ③	1. ㉔	2. ㉓	3. ㉖	4. ㉓		
P.138	P.234	기술 ④	1. ㉔	2. ㉖	3. ㉓	4. ㉓	5. ㉖	
P.142	P.239	기술 ⑤	1. ㉓	2. ㉕	3. ㉓	4. ㉔	5. ㉓	

문제 책 페이지	해설 책 페이지	SET	문제 번호 & 정답					
P.146	P.246	주제 복합 ①	1. ㉔	2. ㉓	3. ㉓	4. ㉔	5. ㉕	6. ㉖
P.150	P.255	주제 복합 ②	1. ㉖	2. ㉓	3. ㉖	4. ㉖	5. ㉓	6. ㉕
P.154	P.262	주제 복합 ③	1. ㉕	2. ㉖	3. ㉔	4. ㉓	5. ㉕	6. ㉖
P.158	P.269	주제 복합 ④	1. ㉖	2. ㉔	3. ㉓	4. ㉖	5. ㉖	6. ㉔
P.162	P.275	주제 복합 ⑤	1. ㉔	2. ㉖	3. ㉖	4. ㉔	5. ㉖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고의 흐름

(가)

1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은 신화적 관점이나 중세 시대의 종교적 관점으로 역사를 파악하고 서술하는 것을 배격했다. 2 이들은 이성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았고, 이러한 입장은 계몽주의자인 볼테르에 의해 확립되었다. 프랑스 계몽주의자인 볼테르의 역사가관이 이 글의 화제임을 알 수 있어. 이는 신화적 관점이나 중세 시대의 종교적 관점과 대비되는 입장이다.

3 볼테르는 역사의 동인을 신으로 보았던 중세 시대의 관점을 비판하고, 이성에 의해 역사가 변화된다고 보았다. 볼테르는 역사의 동인을 '이성'으로 봤어. 4 그는 이성과 자연, 이성과 종교·정치·사회 등의 제도가 상호 작용하면서 역사가 끊임없이 발전한다고 보았다. 5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역사의 발전은 이성 그 자체가 발전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이성의 발전사인 것이었다. 역사의 발전 = 문화를 발전시키는 이성의 발전사 6 그에게 있어 문화는 예술, 법, 정치, 지식, 과학, 풍속, 습관, 음식, 기술, 오락 등 인간 생활과 관련된 것들로 이성의 활동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었다. 7 그는 문화에 대한 이러한 입장에서 문화를 역사 서술의 대상으로 삼아 역사를 서술함으로써 이성의 발전을 드러내려고 했다. 볼테르는 문화를 역사 서술의 대상으로 삼아 역사 서술로 이성의 발전을 드러냈다고 해.

8 볼테르는 모든 시대와 민족을 포괄하는 방대한 문화사를 서술했다. 9 이를 통해 이성이 모든 시대의 역사나 모든 민족의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발전 요소이며, 역사는 이성의 발전과 정임을 드러내려 한 것이었다. 볼테르는 문화사를 서술하면서 역사가 이성의 발전과 정임을 드러내려고 했어. 10 그는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사료를 선택할 때는 이성의 업적을 보여 줄 수 있으면서(볼테르의 사료 선택 기준 1) 가장 확실한 기록에 기초를 둔 역사적 사실들(볼테르의 사료 선택 기준 2)을 선택했다. 11 그리고 역사를 서술할 때는 정치를 역사의 중심에 놓고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예술이나 법과 같은 문화를 구성하는 것들을 화제로 삼아 기술하는 화제 중심 체제의 방식을 사용했다. 전통적인 역사 서술 방식과 볼테르의 역사 서술 방식을 비교하여 정리해 보자.

전통적인 역사 서술 방식	정치를 역사의 중심에 놓고 연대기적으로 서술
볼테르의 역사 서술 방식	문화를 구성하는 것들(예술·법)을 화제로 삼아 기술 → 화제 중심 체제의 방식

4 12 역사가 이성의 발전과 정임을 드러내려는 볼테르의 의도는 이성의 발달에 따라 역사의 시대를 헬레니즘 문명의 알렉산드로스 시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시대, 르네상스의 메디치가 시대,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대로 구분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볼테르의 역사관대로 이성의 발달에 따라 역사의 시대를 구분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13 그에 따르면 각 시대는 이성의 성숙과 완성 정도가 달랐다. 14 한 시대에 이룩된 문화의 성숙은 전승, 누적, 융합되어서 더 발전되고 성숙된 문

화를 만들어 가며, 이는 다시 다음 시대로 이어졌다. 15 이에 따라 루이 14세 시대는 메디치가 시대의 문화가 프랑스에 전승, 누적, 융합되어 성숙 및 발전을 이룬 것이었다. 16 그에게 루이 14세 시대는 이성의 완성에 가장 가까운 시대였다. 각 시대의 문화는 전승, 누적, 융합되어 발전하여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데, 볼테르는 루이 14세 시대를 이성의 완성에 가장 가까운 시대로 평가했다고 해.

5 17 역사와 역사 서술에 대한 볼테르의 입장은 역사는 퇴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는 직선적 역사 발전관으로 볼 수 있다. 직선적 역사 발전관: 역사는 퇴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감 18 또한 그가 이성을 역사의 동인으로 보고 이성을 척도*로 사료를 선택하고 문화를 서술한 것에서, 세계 전체의 역사가 진전되어 가는 원리를 바탕으로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척도에 따라 각 시대를 평가하는 보편주의적 관점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볼테르의 역사관과 역사 서술은 직선적 역사 발전관이며, 사료 선택과 문화사 서술은 보편주의적 관점을 취했다고 평가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

볼테르의 관점을 추가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어!

이것만은 챙기자

- *배격: 어떤 사상, 의견, 물건 따위를 물리침.
- *동인: 어떤 사태를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 데 작용하는 직접적인 원인.
- *척도: 평가하거나 측정할 때 의거할 기준.

만점 선배의 구조도 예시

(가) 볼테르의 역사 철학

이성: 역사의 동인
↳ 역사의 발전 → 문화를 발전시키는 이성의 발전

문화사: 역사가 이성의 발전임을 드러내려 함
· 사료 선택 기준 ① 이성의 업적 보여 줄 수 있어야 함
② 가장 확실한 기록에 기초를 둔 역사적 사실
· 전통적 역사 서술 방식 VS 볼테르의 역사 서술 방식
↳ 정치를 역사 중심에 놓고 연대기적 서술 VS 문화 구성 요소(예술·법) 화제 삼아 기술 → 화제 중심 체제 방식

역사 시대 구분

- 이성의 발달에 따라 구분
- 각 시대 문화 → 전승·누적·융합 → 발전 → 다음 시대
- 볼테르는 루이 14세 시대를 이성의 완성에 가장 가깝다고 여김

역사관

직선적 역사 발전관
→ 역사는 퇴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
보편주의적 관점
→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척도에 따라 각 시대 평가

(나)

1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헤르더는 계몽사상의 시기를 지치면서, 역사에 대한 볼테르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한계 점을 인식했다. 2 그는 개체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역사의 나선형* 적 발전을 주장하면서 볼테르의 입장과 주장을 비판했다. 3 그는 이를 통해서 자신만의 역사 철학을 전개해 나갔다. 볼테르의 역사에 대한 입장과 주장을 비판하는 헤르더의 역사관이 이 글의 화제야. 볼테르는 이성, 보편성과 직선적 역사 발전을 주장한 것에 반해 헤르더는 개체성과 나선형적 역사 발전을 주장하네.

볼테르와 대비되는 헤르더의 입장을 제시할 거야.

4 헤르더가 주장한 개체성은 역사에 대한 볼테르의 보편주의적 관점과 대비되는 것으로, 그에게 개체성은 민족의 개체성을 의미했다. 5 개체성은 기후와 풍토 및 관습 등에 근거해서 여러 지역의 인간 공동체, 다시 말하면 각 민족에게서 다양하게 형성된 것(개체성의 특징 ①)이며 각 민족의 문화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개체성의 특징 ②) 6 따라서 각 민족이 추구하는 목표, 생활하는 방식, 삶을 바라보는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7 이러한 개체성의 입장에서 그는 각 민족이 나름의 독특한 민족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8 이에 따르면 여러 민족들 각각의 역사적 시대는 모든 민족의 역사 속 하나의 개체로서 중요한 가치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각 민족의 역사적 시대는 고유한 위상*에서 연구되어야 하고 그 시대는 존중받아야 했다. 헤르더의 역사관을 알 수 있는 부분이야. 볼테르가 취한 보편주의적 관점은 각 민족의 개체성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각 민족의 역사적 시대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9 헤르더는 민족의 개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족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민족의 시대와 역사, 민족이 처한 환경적 조건 속으로 ③ 침투해서 이것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민족의 개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 선입관을 버리고 환경적 조건에 동화되어야 함 10 개체성에 대한 그의 관점과 이를 이해하기 위한 그의 방법에 따르면, 보편주의적 인 관점으로는 역사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보편주의적 관점 비판 ①) 11 또한 볼테르처럼 이성이라는 보편적 척도에 맞지 않는 역사적 사건들을 무시(보편주의적 관점 비판 ②)하고 중세 시대를 역사 서술에서 제외(보편주의적 관점 비판 ③)해서 로마 시대에서 르네상스 시대로 이어지게 하는 일은, 헤르더의 역사 설명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헤르더의 관점에서 볼테르의 보편주의적 관점을 비판한 내용이 제시되었어.

12 헤르더는 개체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역사가 연속적 성격을 가지면서 나선형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주장했다. 헤르더의 주장인 나선형적 발전에 대해 설명할 거야. 13 역사 서술에서 중세 시대를 제외한 볼테르의 입장과(달리), 헤르더는 중세를 계몽사상 시대의 도래를 위한 준비기였고 근대를 위한 기반이 되는 시대로 이해했다. 헤르더는 중세가 근대를 위한 기반이 되는 시대라고 주장했네. 14 그리고 역사가 나선형적으로 발전한다는 그의 주장은 역사가 성장과 파괴, 건설의 과

'달리' 두에는 헤르더가 볼테르와는 다르게 중세 시대를 중요한 이유가 제시되었지?

정을 반복하며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15 이는 볼테르의 직선적 역사 발전관과 다른 것이었다. 나선형적 역사 발전관: 역사는 성장과 파괴, 건설의 과정을 반복하여 발전함

5 16 헤르더의 주장에 따르면, 역사의 파악과 역사 서술의 기본 단위는 민족이며 역사는 민족의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한다. 17 따라서 헤르더는 문화적 민족주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헤르더의 역사관과 역사 서술은 민족과 민족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으며, 헤르더가 문화적 민족주의 개념을 정립했다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 있어.

이것만은 챙기자

- *나선형: 소라의 껍데기처럼 빙빙 비틀러 돌아간 모양.
- *위상: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 *동화: 성질, 양식, 사상 따위가 다르던 것이 서로 같게 됨.

만점 선배의 구조도 예시

(나) 헤르더의 역사 철학

- 개체성: 볼테르의 보편주의적 관점과 대비되는 것
 - 특징 ① 각 민족에게서 다양하게 형성
 - ② 각 민족 문화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X
 - ⇒ 헤르더는 '개체성'을 인정함
- 여러 민족들 각각의 시대는 중요한 가치·특성 가지고 있음
 - ∴ 각 민족 역사 시대는 고유한 위상에서 연구되어야 함
 - 그 시대는 존중받아야 함
- 민족의 개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
 - 선입관 버리고 민족이 처한 환경적 조건에 동화되어야 함

볼테르의 보편주의적 관점 비판

- ① 역사 설명할 수 X
- ② 이성이라는 보편적 척도에 맞지 않는 역사적 사건들 무시함
- ③ 중세 시대 → 역사 서술 제외함

역사관

- 나선형적 역사 발전관
 - 역사는 성장과 파괴, 건설 과정을 반복하여 발전
- 중세시대 → 근대를 위한 기반
- 역사는 민족 문화 중심으로 발전

⇒ 헤르더는 문화적 민족주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기여함